

한국작물보호협회 「2010신년인사회」

# 책임있는 산업으로서 큰 역할 기대

올해로 창립 37주년을 맞은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엄병만)가 지난 1월 5일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및 대학교수, 언론사,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새해 인사 및 덕담을 나누며 庚寅年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 농업 및 작물보호산업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하는 모습



작물보호협회 엄병만 회장의 인사말 모습



제조회원사 사장들이 농업발전과 풍년농시를 기원하는 뜻의 시루떡을 자르는 모습



공식행사 후 참석자들이 신년 덕담을 나누는 모습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농촌진흥청 강상조 차장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신현관 친환경농업과장, 국립농업과학원 홍무기 농산물안전성부장, 정향영 농업생물부장, 농촌진흥청 이광하 농자재관리과장, 국민농업포럼 황민영 대표, 한국농약과학회 한호규 회장, 서울대 이문한 교수, 충남대 이규승 교수, 강원대 허장현 교수,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정원호 회장, 경농 이병만 부회장, 동부하이텍 최영찬 부사장,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유병두 부사장, 성보화학 윤재동 부회장, 신젠타코리아 김용환 사장, 에스엠비티 김인수 회장, 한국삼공 한태원 사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염병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회이지만 한편으론 세계와 무한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은 한국농업의 불확실성 증대 및 OECD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26위인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농업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병만 회장은 이어 “작물보호업계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작물보호제를 개발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농자재 산업으로서 역할과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작물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Y



농촌진흥청 강상조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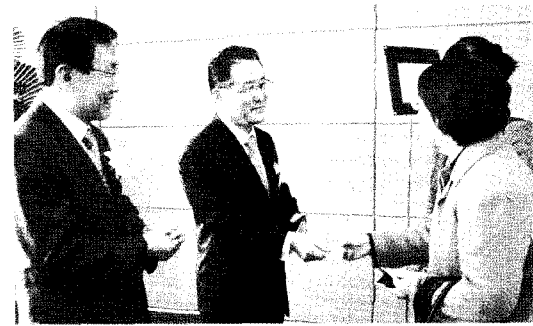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신현관 친환경농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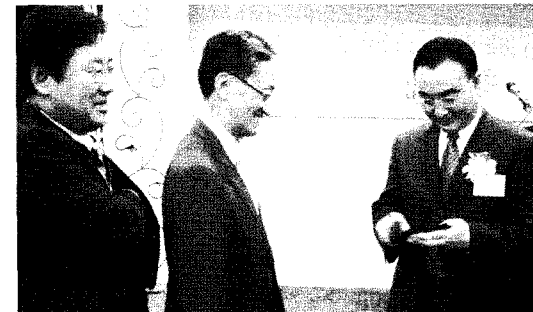
한국농약과학회 한호규 회장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정원호 회장



신년인사회에 앞서 언론사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는 염병만 회장과 최은홍 전무이사(맨왼쪽)



농진청 강상조 차장과 인사를 나누는 경농 이병만 부회장(가운데)과 한국삼공 한태원 사장(맨왼쪽)